



하자센터를 찾아서

글 박연숙(본지기자)

“ ‘하자’ 가 뭐하는 곳이야? 대체 뭘 ‘하자’ 는 건데?”

‘하자센터’ 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하자센터(haja center)는 연세대학교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학습공간으로 지난 1999년 문을 열었다.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문화작업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나아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이다. 이런 점만 보아도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일종의 대안교육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01년에 문을 연 작업장 학교는 대안학교의 개념이 강한 곳이다. 다른 프로그램이 방과 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이라면 하자작업장 학교는 16세부터 24세 사이의 탈학교 청소년

들이 길찾기 과정, 주니어과정, 시니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차작업장학교의 담임을 맡고 있는 뮤즈는 “우리 세대에도 서태지에 열광하고,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은 있었어요. 그러나 작업장학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꿈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목표를 찾기 위해 오는 곳이죠”라고 작업장 학교를 설명한다.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지만 이곳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스스로 디자인하는 학습의 주체가 된다고.

재미있는 점은 학교에서 통용되는 ‘선생님’과 ‘학생’의 개념이 하자센터에서는 ‘판돌이’와 ‘죽돌이’로 불려진다는 점이다. ‘판돌이’는 판을 벌이는 사람, 우리가 아는 의미로 선생님이고, ‘죽돌이’는 이 공간에서 죽치고 있는 사람, 즉 우리가 아는 ‘학생’이다. 자칫 가벼워보일 수도 있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 기존 학교의 대안으로 운영되는 공간인만큼, 각각의 단어에서도 대안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영희’, ‘철수’와 같은 이름 대신 자신이 불리고 싶은 이름을 정하고 적어도 그 안에서는 서로를 그렇게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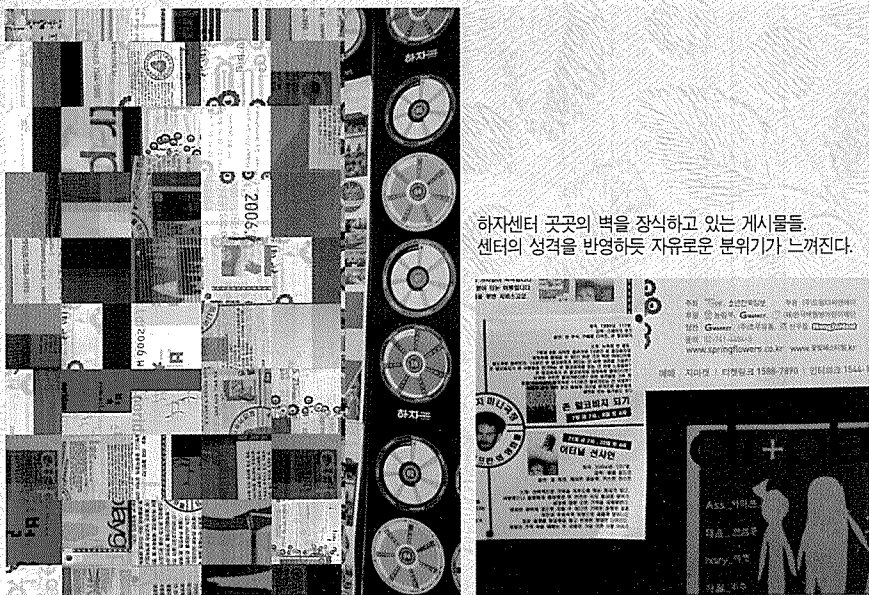


작업장학교의 '보이는 피아노' 수업에서 만난 '사탕'과 'SSong', '김쏘', '테리', '거품'도 다 자신이 직접 붙인 이름이다. '사탕'은 엄마의 권유로 하자센터를 처음 찾았다고 한다. 하자센터에서 생활한지 2년 정도가 되었다는 사탕은 공연단활동과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창작프로젝트'와 '보이는 피아노', '마임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 주니어 과정을 듣고 있으며 앞으로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도 있다. SSong은 '보이는 피아노' 수업에서 실력을 보여준 친구이다. 앞으로 배우가 되어서 무대에 서고 싶다고 한다. 이처럼 꿈을 향해 한발짝한발짝 내딛는 아이들이다.

언어가 행동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다. 대안학교인 하자에서는 기존의 언어를 거부하고 새롭게 언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좀 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면 'teacher'의 개념이 강하지만 하자에서의 '똥돌이'는 'tutor'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담임 한 명이 10~15명의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하자, 일곱 개의 약속

자율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하자이지만 이곳에도 죽돌이들의 일곱가지 약속(권리와 의무)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도 할거다” “나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안한다”
 “어떤 종류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을 거다” “내 뒤통자끼리는 내가 할거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정보 때문에 치사해지지 않을 거다. 정보와 자원은 공유한다” “인장 바꿔 생각할 거다. 배려와 친절”
 “약속은 지킬 거다. 못 지킬 약속은 안할거다”

또 자치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센터 내에서의 금주, 실내에서 금연 등의 최소한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정하고 있으며 규칙 위반시에는 경고 혹은 한 달간 센터 출입금지, 20시간 자원봉사 등을 지키도록 한다.

정규 학교와 많이 다른 공간, 공교육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하자센터라는 것을 짧은 방문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었다. 청소년 개개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줄 수 있는 하자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전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판돌이들의 역할이죠. 기존의 학교 시스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치유되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라는 선생님의 말처럼. 卍

